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

(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파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흰히 가르마 냈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졌지요..... ㉠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늙은 나뭇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_____ [㉡]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홀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갯작대기 뉘어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거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_____ [㉣]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팍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대길이 아저씨 _____ [㉤]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텃도지가 밀려 잔뜩 주눅이 든 허리 굽은 새우젓 장수다.
 건넌방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금광 덕대를 하는 삼촌에다 금방앗간을 하는 금이빨이 자랑인 두집 담 주인과 어울려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무슨 주관질이다.
 할머니는 헛간에서 국수들을 돌리시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재봉틀을 돌리신다.
 찌걱찌걱찌걱..... 할머니는 일이 힘들어 볼이 부우셨고,
 돌돌돌돌..... 어머니는 기계 바느질이 즐거워 입을 병긋대신다.
 나는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한다.

 중원군 노은면 연하리 470, 충주시 역전동 477의 49,
 혹은 안양시 비산동 489의 43,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27의 29.
 이렇게 옮겨 살아도 이 틀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아버지는 건넌방에, 할머니는 헛간에 어머니는 안방에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으리.
 어찌라, 바다를 건너 딴 나라도 가고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
 저승에 가도 이 틀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이 싫지만.

 어느새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의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
 사랑방과 건넌방과 헛간과 안방을 오가면서
 칠없는 아이가 되어 딱지를 치고 구슬 장난을 하면서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이 그림 속에서.
 - 신경림, 「즐거움 나의 집」 -

37.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③ 대화체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④ 일상적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38.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대길이 아저씨'에게 한글을 배워 세상에 대해 알아 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 '대길이 아저씨'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 내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③ ㉢: '대길이 아저씨'가 현실 세계에 대한 대안의 공간으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④ ㉣: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도 전달되었음을 보여 준다.
 ⑤ ㉤: '대길이 아저씨'가 화자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변함없이 화자의 삶을 이끌어주었음을 보여 준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인간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에 대해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곳은 자신을 감싸주던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근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이끌려 결국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떠나게 된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젠가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원적인 애착이 그려낸 기억의 '그림'이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을 오가며' 놀이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를 떠오르게 하는군.
 ②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한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하기 때문이겠군.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려서부터 외지로 떠돈 것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에 화자가 이끌렸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라고 한 것은 화자가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겠군.
 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는 화자가 '이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겠군.

1) 2016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7-39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가)

생시련가 꿈이런가 천상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 못신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 강호에 놀이며 달이 내 분수에 옳도다.

뜻밖에 꿈을 꾸어 ㉢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못신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 백만억 창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 목수 이루어냈는고
 옥황께 여쭙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 중수: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침.

(나)

청광(淸光)을 머금으니, 폐부(肺腑)에 흘러 들어
 호호(浩浩)한 흉중(胸中)*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 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퇴려 하였더니,
 맘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天地) 회맹(晦盲)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반각(遙岑半角)*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庭畔)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金鵲鏡) 닦아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長空)은 만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서의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뤘 다시꿈 생각하니,
 영허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明月吟)」 -

* 호호한 흉중: 넓고 넓은 가슴 속.
 * 요잠반각: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 단단 환선: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
 * 서의한: 맹세한, 약속한.
 * 영허소장: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실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던 윤선도는 자신을 질시하는 세력들을 의식하여 임금의 지극한 부름을 사양했다. 그러나 고산에 은거하면서도 임금을 도와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윤선도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을 꿈 속 천상계의 일에 빗대어 「몽천요」를 창작하였다.

- ① ㉠은 작가가 임금의 부름을 사양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작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임금을 떠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로, 작가 자신을 비롯한 인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사퇴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옛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③ ‘제몸만 밝히’는 ‘금작경’은 피란길에 오른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 ④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자신의 뜻이 ‘허사’라고 한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진토’로 인식한 결과이겠군.

회원 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커뮤니티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 서 홉 밥 닷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설 데운 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리한들 ㉡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피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뭉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랴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 불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선 시대에 여러 내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한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은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커뮤니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3) 2016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교전시가 (2016년 7월 시행)


정답

2016년 3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3월 시행)
37.① 38.③ 39.⑤
2016년 4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4월 시행)
43.① 44.⑤ 45.②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7월 시행)
31.③ 32.④ 33.⑤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10월 시행)
35.③ 36.⑤ 37.④ 38.④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커뮤니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BY - NC - 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